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7. 8.(목) / 총 7매(본문2, 참고5)	
담당 부서	도시재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황윤언, 사무관 현혜지, 주무관 이우진 ·☎ (044) 201-4151, 4910	
	도심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상민, 사무관 박원호, 김동현 ·☎ (044) 201-4932, 4936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도심→ 활성화거점으로 재탄생

-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24년까지 2,065억 투입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 '21년 1차 중앙 선정 결과 >

지역	합계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13	1	1	2	1	2	1	1	2	2
총괄	2	사상	-	영월	-	-	-	-	-	-
인정	11	-	남동	홍천	충주	아산 당진	군산 (경암)	영암	문경 청송	창녕 창원

* 총괄사업관리자형 : 공기업이 주도하는 거점사업(공공임대주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 인정사업 :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기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국비 690억, 지방비 722억, 부처연계 65억, 공기업 565억, 기금/민간 23억

- 공공임대주택 공급(240호) 및 노후주택 정비(120호) 등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되며,
-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개* (공사단계 1,274개, 운영·관리단계 25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공공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만 추정하였으며, 향후 쇠퇴지역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고용창출 예상

□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선정)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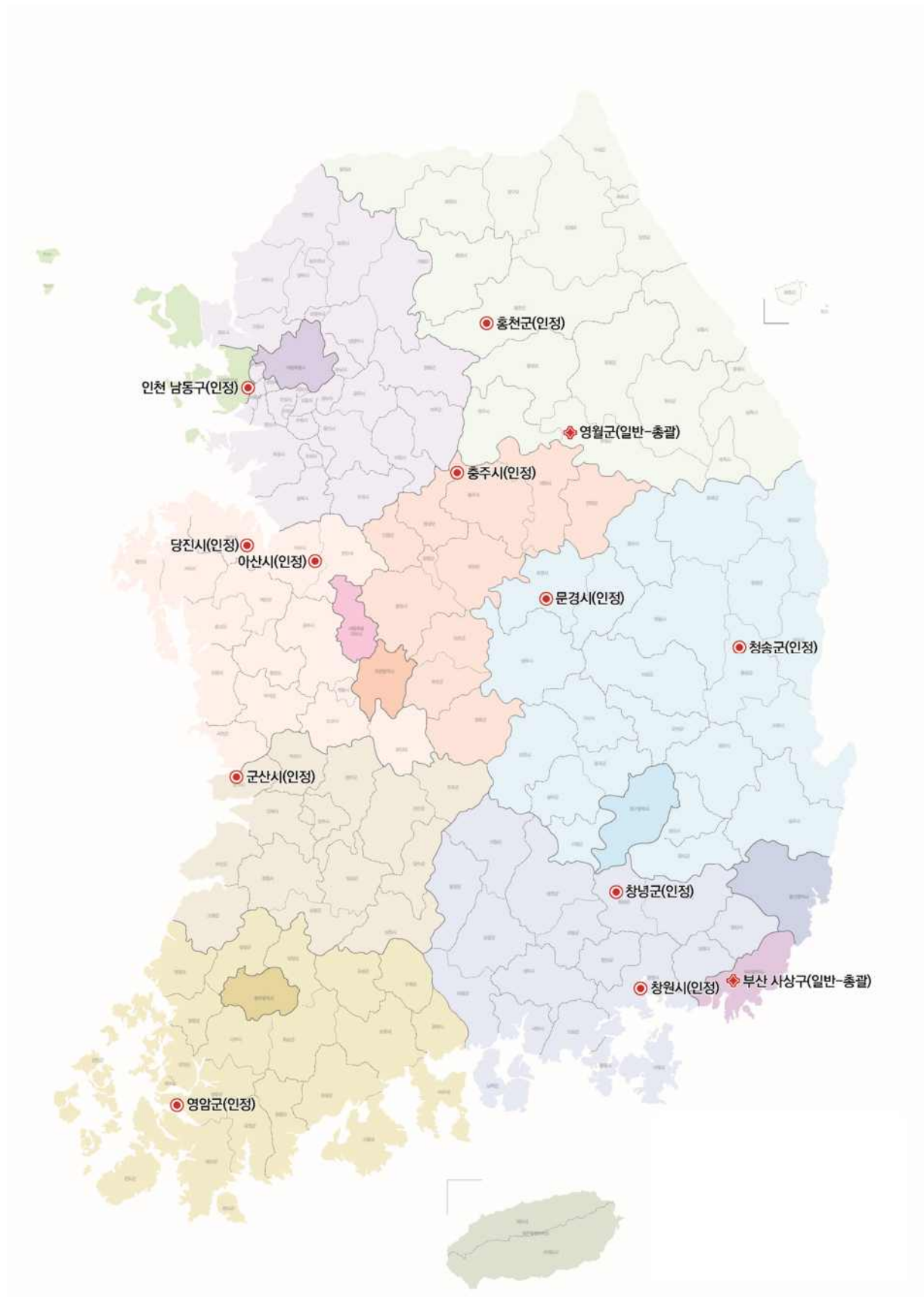
-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포함하여, 현재 총 417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78%(325곳)는 비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 52%(216곳)는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에서 진행 중

□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현혜지 사무관(☎044-201-4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21년 1차 신규선정 총괄표 (총 13곳)

* 그린뉴딜 13개소(ZE : 제로에너지 건축, GR : 그린리모델링)

사업명(유형)	주요 내용
부산사상 ^{ZE} (일반, 총괄)	(내용)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복지 복합거점공간 및 골목상권 컨설팅 지원 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비) 621.2억(국비100) / (일정) '21~'24년
강원영월 ^{ZE·GR} (일반, 총괄)	(내용) 청년귀촌인 정착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사업비) 495.6억(국비100) / (일정) '21~'24년
충북충주 ^{ZE} (인정)	(내용) 舊보건지소(D등급) 철거 후 도서관·경로당 등 생활SOC 조성 (사업비) 80.8억(국비46.1) / (일정) '21~'23년
충남당진 ^{ZE} (인정)	(내용) 방치된 공·폐가 부지에 건강운동실·청소년 학습방 등 조성 (사업비) 94억(국비49.8) / (일정) '21~'23년
경북청송 ^{ZE} (인정)	(내용) 舊보건의료원(D등급) 철거 후 건강실·다목적 강당 등 신중·장년층 소통·협력 시설 신축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비) 83.3억(국비50) / (일정) '21~'23년
경남창녕 ^{ZE} (인정)	(내용) 舊소방대(D등급) 철거 후 청년일자리·사회참여 지원 공간 조성 (사업비) 98.2억(국비28.9) / (일정) '21~'23년
인천남동 ^{ZE} (인정)	(내용) 행정복지센터('93 준공)를 재건축하여 생활체육실·돌봄센터 등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 (사업비) 99.9억(국비37.6) / (일정) '21~'23년
강원홍천 ^{GR} (인정)	(내용) 舊소방서 부지에 청소년·노인복지시설 등 생활SOC 확충 (사업비) 98.7억(국비50) / (일정) '21~'23년
충남아산 ^{GR} (인정)	(내용) 송곡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로컬 마켓·공방 등 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사업비) 57억(국비34.2) / (일정) '21~'23년
전남영암 ^{ZE} (인정)	(내용) 노후공공청사('97 준공) 철거 후 돌봄센터·체육센터 등 조성 (사업비) 76.6억(국비44) / (일정) '21~'23년
전북군산 ^{ZE} (인정)	(내용) 노후 행정센터 부지 및 인접 초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체육·돌봄센터 등 생활SOC 복합조성 (사업비) 93.4억(국비50) / (일정) '21~'23년
경북문경 ^{ZE} (인정)	(내용) 산단근로자·주민을 위한 도서관·커뮤니티 공간 등 (사업비) 83.3억(국비50) / (일정) '21~'23년
경남창원 ^{ZE} (인정)	(내용) 경화역 공원 부지에 주민·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관광 안내소·문화교실 등의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83.78억(국비49.9) / (일정) '21~'23년

① 부산 사상구(총괄사업관리자(일반근린형), LH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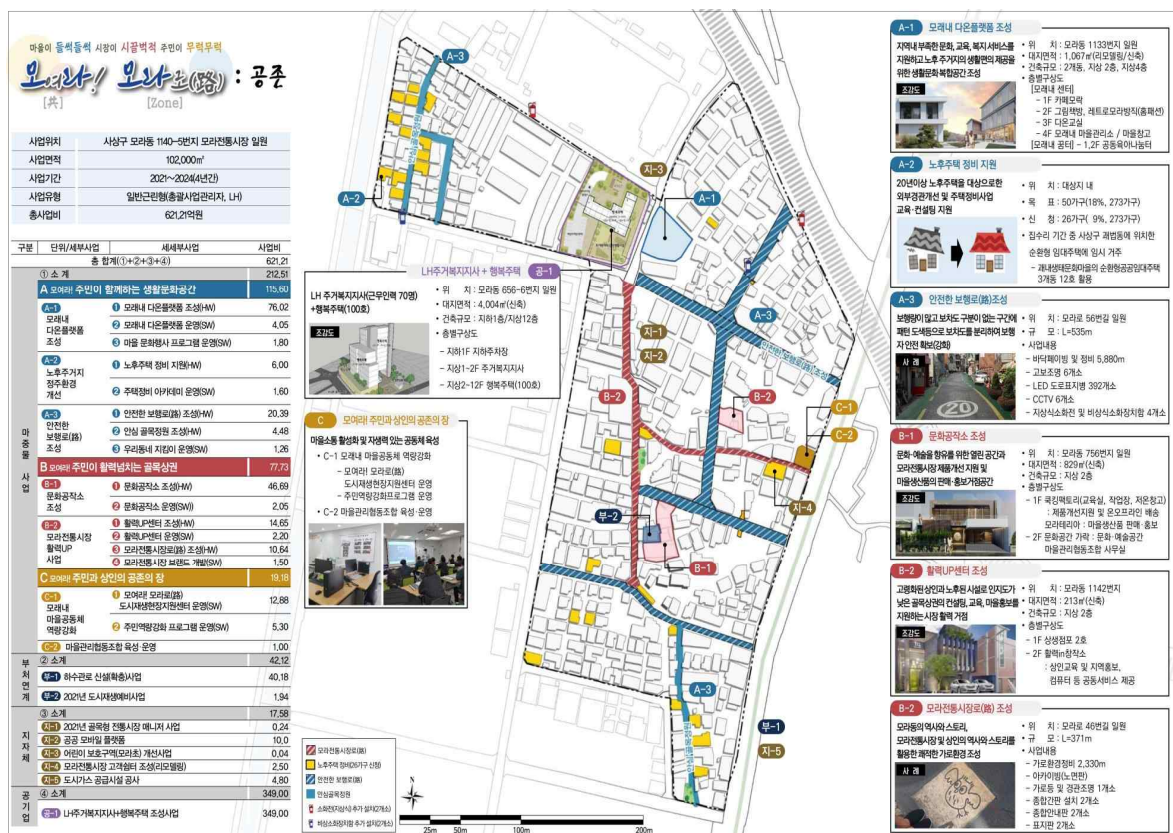
◆ 모라동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ㄱ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다. 문화공작소에서 이웃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다음달부터 모라동 배달앱을 통해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려고 한다. ㄱ씨의 어머니는 다운플랫폼의 공동육아나눔터에 손녀를 맡기고, 이웃주민들과 소일거리로 에코백 제작을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 ㄱ씨 가족은 축제가 개최되는 모라 전통시장에 들러 공연도 관람하고 프리마켓도 직접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 부산 사상구 재생사업은 주변지역 개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한 지역에 생활문화복지거점, 시장활력거점을 조성해 지역상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노후주택·골목길 정비와 행복주택(LH)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면적) 102천㎡ (사업비) 621.21억(국비 100, 지방비 100억, 공기업 349억, 기금 10억 등)

- 직물·신발 등 제조업이 주산업이던 모라동은 '90년대 산업업종의 전환과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상권 침체,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 이에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건축물을 활용하여 모래내 다운플랫폼을 조성하고 카페, 방직교육 공간, 그림책방, 마을관리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공간 제공으로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 모라전통시장 내 방치된 빈점포를 문화공작소로 탈바꿈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제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이용하고, 창업 지원 시설인 활력UP센터 조성을 통해 상인대상 자생력 강화 교육 및 홍보지원 등 골목상권 컨설팅을 진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 아울러,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보·차도 분리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LH공사는 행복주택(100호)과 더불어 주거복지지사를 함께 조성하여 주거복지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문화공작소, 활력UP센터)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 區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 등을 통해 모라동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② 경남 창원시(인정사업, 유희 공공용지 활용형)

◆ 니캉내캉多가치센터 인근에 식당을 운영하는 L씨(60세)는 센터가 생기고 나서의 즐거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전에는 벚꽃축제기간에 관광객이 많아도 식당 손님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센터까지 동선이 이어져 식당으로도 꽤 손님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센터를 다니면서 이웃도 사귀고 취미도 가지면서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있다.

□ 창원시 진해구 인정사업은 경화역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니캉내캉多가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면적) 2,097㎡ (사업비) 83.18억(국비 49.9, 지방비 33.28억, 자체지방비 0.6억)

○ 대상지는 벚꽃축제로 유명한 ‘군항제’의 중심지인 경화역이 인접하여 봄에 관광객의 유입이 많고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철로(진해선)와 도로(6차선)로 분리된 북부생활권에는 생활SOC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옆 동네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 5개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교실 등)이 국가 최저기준 미달

○ 이에 창원시는 인정사업을 통해 ‘23년까지 총 84억 원(국비 50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관광안내소, 북카페, 문화교실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니캉내캉多가치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경화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 체류가 증대되고 관광객 유입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창원시 인정사업 대상지 현황 및 사업예시도 >

